

2007학년도 3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제 1 교시

언 어 영 역

성명

수험번호

1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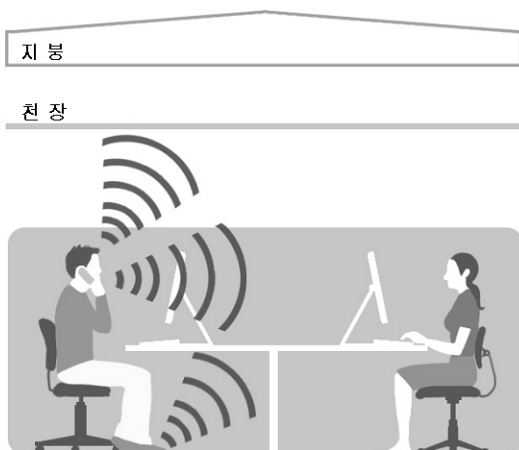
- 먼저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기입하십시오.
- 답안지에 수험 번호 및 답을 표기할 때는 반드시 '수험생이 지켜야 할 일'에 따라 표기하십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십시오. 1점과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씩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1. (물음) '만덕'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장사 수완이 대단했던 것 같아.
- ② 임금에 대한 충성심도 남달랐던 것 같아.
- ③ 기존의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았어.
- ④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간 인물이야.
- ⑤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았던 삶이 존경스러워.

2. (물음) 다음의 상황에서 소음을 줄이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흡음을 위해, 바닥에 양탄자를 깔다.
- ② 흡음을 위해, 천장의 높이를 낮춘다.
- ③ 중화를 위해, 중화음 발생 장치를 설치한다.
- ④ 차음을 위해, 책상 위에 칸막이를 설치한다.
- ⑤ 흡음을 위해, 천장의 재료로는 흡음재를 사용한다.

3. (물음) 여학생이 자신의 말을 뒷받침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활용한 자료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지역별 최저 생계비를 비교한 통계
- ② 물가 상승률의 변화를 분석한 신문 기사
- ③ 최근 10년간 경제 성장률을 보여 주는 도표
- ④ 대기업의 순이익 증가액을 보여 주는 그래프
- ⑤ 개인 소득과 물가의 상승률을 비교한 보고서

【4-5】 들려주는 내용을 잘 듣고, 4번과 5번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4. (물음) 이 대답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아닌 것은?

- ① 유머는 청자의 예측에 부합할 때 효과가 있다.
- ② 유머에는 대상에 대한 공감의 태도가 담겨 있다.
- ③ 유머를 구사할 때는 청자의 특징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④ 유머는 인간의 행동이나 말에 내포된 웃음을 뜻한다.
- ⑤ 유머를 적절하게 구사하면 상대의 마음을 열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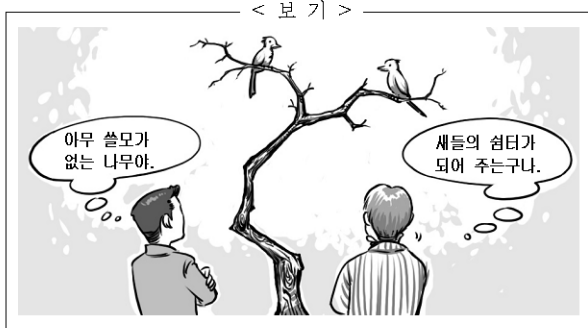
5. (물음) '장 선생님'이 설명한 방법에 따를 때,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_____ < 보 기 > _____
 철수 : 너 우울해 보인다.
 영희 : 좀 그래.....,
 철수 : 따뜻한 말로 위로해 줄게. _____

- ① 우울할 땐 하늘을 봐.
- ② 가스보일러, 온풍기, 손난로.
- ③ 네 곁에는 항상 내가 있잖아.
- ④ 살다 보면 그런 일은 흔한 거야.
- ⑤ 네가 잘못된 건 없으니까 기분 풀어.

이제 듣기 문제는 다 끝났습니다. 6번부터는 문제지의 지시에 따라 답을 하기 바랍니다.

6. <보기>의 그림을 활용하여 ‘바람직한 인간관계’에 관한 글을 쓰고자 한다. 연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지나친 경쟁은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
- ②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어야 한다.
- ③ 전체를 위해 희생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 ④ 상대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⑤ 상대의 잘못을 비난하기에 앞서 자신부터 성찰해야 한다.

7. <보기>의 조건에 따라 홍보 문구를 써 보았다. 가장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소외된 이웃에 대한 사랑'을 주제로 한다.
 - 비유와 대구의 표현 기법을 활용한다.

- ① 사랑은 연탄불처럼 따뜻합니다. 연탄불 같은 사랑만 있으면 추운 겨울도 두렵지 않습니다. 당신의 사랑으로 이 겨울을 이겨 내세요.
- ② 우리에게는 가난하고 배고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살기가 힘들었지만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지금도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 ③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소외된 사람들이 당신 가까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당신의 가슴까지 따뜻해질 것입니다.
- ④ 사랑과 관심을 주면 외롭지 않지만, 무관심하면 외로운 이웃이 있습니다. 소외된 이웃을 위해 앞장서는 당신, 생각하면 할수록 참 좋은 당신입니다.
- ⑤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겨울을 이겨내는 나무들도 있고, 냉정한 무관심 속에서 죽어가는 나무들도 있습니다.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랑의 방한복을 입혀 주세요.

8. '남북한 언어의 차이'에 관한 글을 쓰기 위해 <보기>와 같이 개요를 작성한 후 점검을 해 보았다. 수정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주제문 : 남북한 언어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 I. 서론 : 언어의 오염이 심화되는 남북한의 현실 ㉠
- II. 본론
 1. 남북한 언어 차이의 실상 ㉡
 - 가. 맞춤법의 차이
 - 나. 발음의 차이
 2. 남북한 언어의 차이가 발생한 이유
 - 가. 분단으로 인한 교류의 단절
 - 나. 북한 핵문제에 의한 갈등 심화 ㉢
 - 다. 남북한 언어 정책의 차이
 3. 남북한 언어 순화 정책의 방향 ㉣
 - 가. 남북 교류의 확대
 - 나. 남북한 공용 사전의 개발 및 보급
 - 다. 남북 언어 통일을 위한 기구 설립
- III. 결론 : 협력 촉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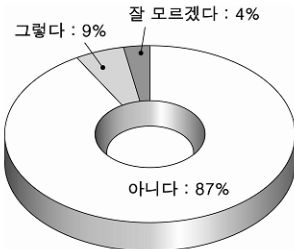
	점검 사항	수정 방안
①	서론의 내용은 적절한가?	㉠은 '남북한 언어의 차이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로 바뀌어야겠어.
②	불충분한 내용은 없는가?	㉡의 하위 항목에 '어휘의 차이'를 넣어야겠어.
③	상위 항목에서 벗어난 내용은 없는가?	㉢은 '의사소통 방법의 다양화'로 바뀌어야겠어.
④	하위 항목을 적절히 포괄하고 있는가?	㉣은 '남북한 언어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바뀌어야겠어.
⑤	결론은 명료한가?	㉤은 '언어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남북한의 협력 촉구'로 수정해야겠어.

9. '저작권 침해 문제'에 관한 글을 쓰고자 한다. <보기>의 자료를 모두 활용하여 이끌어 낼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ㄱ) 저작권 침해에 관한 설문 조사
(설문 대상 : 청소년)

- 질문 : 인터넷에서 마음에 드는 글이나 사진을 무단으로 복사해서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는가?
- 답변



(ㄴ) 한국 소프트웨어 저작권 협회는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 금액이 연간 2조 3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P2P 사이트와 각종 포털 사이트를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 ○○일보 -

(ㄷ) "학교에서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교육하고 있지만 내실 있는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학교에서는 저작권 보호에 관한 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 ○○○ 교수와의 인터뷰 -

- ①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개발한 정책의 실효성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 ② 저작권을 보호하고 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련 법안을 재정비해야 한다.
- ③ 저작권 침해 문제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 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 ④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저작권 보호 관련 교육의 실패를 면밀히 조사해 보아야 한다.
- ⑤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의 잘못된 인식부터 개선해야 한다.

10. 다음은 어느 학생이 쓴 편지글이다. 이를 고쳐 쓰기 위한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저는 친구들과 어울려 운동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 그런데 저에게 좋은 대학에 가야 한다면 공부 외의 일에는 관심을 갖지 말라고 하십니다. 방과 후에 친구들은 농구나 축구 시합을 해도, 전 항상 학원에 가야만 합니다. 처음에는 저에게 운동을 하자고 권하던 친구들도, 이젠 제가 참여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 저는 운동도 좋아하지만 컴퓨터 게임도 잘합니다. 저도 친구들과 함께 맘 흘리며 ㉢ 운동과 이야기도 나누면서 친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선생님, 저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도 있듯이, 학창 시절의 친구는 소중한 존재라고 합니다. 친구들과 어울리며 지낼 수 있도록 부모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저에게 꼭 ㉤ 가르쳐 주세요.

- ① ㉠에는 주어가 생략되어 어색하므로 '부모님께서'라는 말을 넣어야겠어.
- ② ㉡은 글의 통일성을 해치는 내용이므로 삭제해야겠어.
- ③ ㉢에는 서술어가 잘못 생략되었으므로 '운동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면서'로 고쳐야겠어.
- ④ ㉣은 내용상 어울리지 않으므로 '가재는 게 편이라는'으로 바꿔야겠어.
- ⑤ ㉤은 어법에 맞지 않는 말이므로 '가르쳐'로 고쳐야겠어.

11. 밑줄 친 표현 중, 문맥상 비슷한 의미를 가진 쌍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기가 차서 할 말을 잃었다.]
[기가 막혀 할 말을 잃었다.]
- ② [마음에 드는 사람은 흔하지 않다.]
[마음에 차는 사람은 흔하지 않다.]
- ③ [철수는 아직도 철이 들지 않았다.]
[철수는 아직도 철이 나지 않았다.]
- ④ [고향 마을은 여전히 내 눈에 익었다.]
[고향 마을은 여전히 내 눈에 남았다.]
- ⑤ [자식이 하는 일이 안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다.]
[자식이 하는 일이 못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다.]

12 <보기>의 ㉔ ~ ㉖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도깨비는 부엌집 문 앞에서 둘째 아들을 세워 놓고,
 “㉔여보게, 자네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게. 나는 들어가서
 딸의 혼을 꺾어 올 테니.”
 하고는 그 집으로 들어갔다.
 둘째 아들이 잠시 기다리고 있는데, 도깨비가 금방 나왔다.
 ㉕“딸의 혼은 어떻게 했는가?”
 ㉖“지금 이렇게 손에 꼭 쥐고 있지 않은가?”

- ① ㉔에서는 ㉕에서처럼 주어 ‘자네는’을 생략할 수 있다.
 ② ㉕의 ‘딸의 혼’ 앞에 ㉔의 ‘여보게’를 넣을 수 있다.
 ③ ㉕의 ‘어떻게’와 ㉖의 ‘이렇게’는 부사어이다.
 ④ ㉖의 ‘손에’는 ㉕의 ‘여기서’로 대신 나타낼 수 있다.
 ⑤ ㉖에서 생략된 목적어는 ㉕의 ‘딸의 혼’이다.

【13-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봄은
 남해에서도 북녘에서도
 오지 않는다.

너그럽고
 빛나는
 봄의 그 눈짓은,
 제주에서 두만까지
 우리가 다닌
 아름다운 논밭에서 움튼다.

겨울은,
 바다와 대륙 밖에서
 그 ㉑매서운 눈보라 몰고 왔지만
 이제 올
 너그러운 봄은, 삼천리 마을마다
 우리를 가슴속에서
 움트리라.

움터서,
 강산을 덮은 그 미움의 쇠불이들
 눈 녹이듯 호물호물
 녹여버리겠지.

— 신동엽, 「봄은」 —

(나)

어느 날 당신과 내가
 날과 씨로 만나서
 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
 우리들의 꿈이 만나
 한 폭의 비단이 된다면
 나는 기다리리, 추운 길목에서
 오랜 침묵과 외로움 끝에
 한 슬픔이 다른 슬픔에게 손을 주고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의
 그윽한 눈을 들여다볼 때
 어느 겨울인들
 우리들의 사랑을 춤게 하리
 외롭고 긴 기다림 끝에
 어느 날 당신과 내가 만나
 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

— 정희성,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게」 —

(다)

너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다면
 굳게 껴안은 두 팔을 놓지 않으리
 너를 향하는 뜨거운 마음이
 두터운 네 등 위에 내려앉는
 ㉒겨울날의 송이눈처럼 너를 포근하게
 감싸 껴안을 수 있다면
 너를 생각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져
 네 곁에 누울 수 없는 내 마음조차 더욱
 편안하여 어머니의 무릎잡처럼
 고요하게 나를 누일 수 있다면
 그러나 결코 잠들지 않으리
 두 눈을 뜨고 어둠 속을 질러오는
 한세상의 슬픔을 보리
 네게로 가는 마음의 길이 끊어져
 오늘은 그 끝이 보이지 않더라도
 네게로 가는 불빛 잃은 발걸음들이
 어두워진 들판을 이리의 목소리로 울부짖을지라도
 너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다면
 굳게 껴안은 두 손을 풀지 않으리.

— 박재구, 「희망을 위하여」 —

13 (가) ~ (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두 공간을 대비하여 화자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② (가)와 (다)는 과거와 현재를 함께 제시하여 대상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③ (나)와 (다)는 처음과 끝에 유사한 시구를 반복하여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④ (가) ~ (다)는 모두 반어적 표현으로 화자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⑤ (가) ~ (다)는 모두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14 <보기>는 (가)에 대한 학생의 감상문이다. 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작품에서 봄은 ‘우리가 디딘 아름다운 논밭에서, 우리를 가슴속에서 움튼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로 지칭되는 대상에게 봄이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는 말 같다. ① ‘우리’는 ‘제주에서 두만까지 아름다운 논밭을 디디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민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우리의 민족에게 봄은 어떤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걸까? ② 마지막 연의 내용으로 보아 봄은 ‘미움의 쇠붙이들’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 같다. ③ 작품에서 ‘봄’ 앞에 ‘너그러운’이라는 수식어를 붙인 것도 이와 관련되는 것 같다. 미움을 없앨 수 있는 것은 너그러운 마음이기 때문이다. ④ 그러한 봄이 ‘우리들 가슴속에서 움트리라’라고 한 것은 우리 민족 스스로 그러한 봄을 만들어 내야 한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⑤ 전체적으로 봄과 겨울을 대비한 것은, 자연스러운 계절의 순환마저 거부하려는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5 <보기>의 인터뷰 내용을 참고하여 (다)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기자 : 선생님께서 이번에 희망을 주제로 한 작품을 발표하셨는데요, 우리의 현실이 희망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노래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인 : 희망에 대한 확신이 없는 한 우리의 삶은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희망을 통해 우리는 절망적 현실에서 자신을 추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 ① ‘너’에 대한 ‘사랑’에서 희망을 갈구하는 화자의 소망을, ‘손’과 ‘팔’을 풀지 않겠다는 것에서 희망을 잃지 않으려는 의지를 느낄 수 있다.
- ② ‘너를 생각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진다’는 것에서 절망적 현실의 깊이와 아울러 희망을 갈구하는 마음의 깊이를 느낄 수 있다.
- ③ ‘어머니의 무릎처럼 고통하게 나를 누인다’는 표현은 삶의 의미를 잃고 절망에 빠져 있는 화자의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결코 잠들지 않고 한세상의 슬픔을 본다’는 것은 희망을 가지고 현실을 직시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 ⑤ ‘불빛 잃은 발걸음들’이 울부짖는 ‘어두워진 들뜬’은 절망적인 현실을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6 ㉠과 ㉡을 통해 이끌어 낼 수 있는 ‘눈’의 이미지로 적절한 것은?

- ① 소리 없이 내리므로 고요하며 그렇기 때문에 상념을 불러일으킨다.
- ② 쉽게 녹아 없어진다는 점에서 일시적이며 그렇기 때문에 허무하다.
- ③ 하얗다는 점에서 순결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쉽게 더러워질 수 있다.
- ④ 공중에 흩날리므로 불안정하지만 결국은 땅에 쌓이므로 안정적이기도 하다.
- ⑤ 매섭게 몰아치기에 냉혹하기도 하지만 부드럽게 감싸 주기에 포근하기도 하다.

【17-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동길이는 사친회비를 제때에 내지 못해 학교에서 쫓겨난다. 그러던 어느 날 한국전쟁 노무자로 징용당했던 아버지가 한쪽 팔을 잃은 채 2년 만에 돌아온다. 목수였던 아버지는 그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극장에 취직을 하게 된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종이로 수업을 만든다.

삼거리에 이르렀을 때였다. 동길이는 눈이 번쩍 뜨였다. 참 희한한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저만큼 먼 거리였으나 얼른 보아 그것이 무슨 광고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가마니 한 장만이나 한 크기일까? 그런 광고판이 길 한가운데를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는 것이었다. 그 움직이는 광고판을 따라 우르르 아이들이 떠들어 대며 몰려 오고 있었다. 동길이는 저도 모르게 뛰고 있었다. 차츰 가까워지면서 보니 그것은 틀림없는 광고판이었다. 그러나 그 광고판에는 다리가 두 개 달려 있고, 머리로 하나 붙어 있었다.

사람이었다. 사람이 가슴 앞에 큼직한 광고판을 매달고 걸어오고 있는 것이었다. 등에도 똑같은 광고판을 짊어지고 있는 듯했다. 머리에는 알통달통하고 주뻗한 고깔을 쓰고 있었고, 얼굴에는 밀가루인지 흰지 모름 뿐언 분이 덕지덕지 칠해져 있었다. 그리고 턱에는 수염이 허영게 나무끼고 있었다. 아주 늙은 노인인 것 같기도 했고, 어찌 보면 그렇지 않은 듯도 했다.

이 희한한 사람이 간간이 또 메가폰을 입에다 갖다 대고, 뭐라고 뻑뻑 소리를 질러 대는 것이 아닌가.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아닐 수 없었다.

“아아, 오늘 밤의, 아아, 오늘 밤의 활동사진은 쌍권총을 든 사나이, 아아, 쌍권총을 든 사나이. 많이 구경하러 오이쇼! 많이 구경하러 오이쇼!”

그러고는 쑥스러운 듯 얼른 메가폰을 입에서 떼어 버리는 것이었다. 그럴라치면 이번에는 아이들이 제각각 목소리를 돋우어,

“아아, 오늘 밤에는 쌍권총을 든 사나이.”

“아아, 쌍권총을 든 사나이, 구경하러 오이소.”

“아아, 오늘 밤에 많이많이 구경하러 오이소.”

하고 떠들어 댔다.

동길이는 공연히 즐거웠고, 가슴이 울렁거렸다. 우뚝 멈추어 서서 우선 광고판의 그림부터 바라보았다. 시꺼먼 안경을 낀 코 갱이가 큼직한 권총을 두 자투 양쪽 손에 쥐고 있는 그림이었다. 노란 머리카락과 새파란 눈깔을 가진 여자도 하나 윗도리를 거의 벗은 것처럼 하고 권총을 든 사나이 등 뒤에 ㉠ 납작 붙어 있었다. 괴상한 그림이었다.

“아아, 쌍권총을 든 사나이, 아아, 오늘 밤의 활동사진은 쌍 권총을 든 사나이, 많이 구경 오이소! 많이많이 구경 오이소!”

그리고 메가폰을 입에서 뱀 그 희한한 사람의 시선이 동길이의 시선과 마주쳤다. 순간 동길이의 ㉡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말았다. 뒤통수를 야물게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다. 그리고 눈물이 펄 돌았다. 어처구니가 없었다. 그 희한한 사람이 바로 아버지였던 것이다.

아버지는 동길이의 눈이 마주치자 약간 멧쩍은 듯했다. 그러고는 얼른 시선을 돌려 버리는 것이었다. 동길이는 코끝이 매워 오며 뿌연게 눈앞이 흐려져 갔다. 아이들은 더욱 신명이 나서 떠들어 댔다.

“아아, 오늘 밤에는 쌍권총입니다.”

“아아, 쌍권총을 든 사나이 재미가 있습니다.”

이런 소리에 석여 분명히,

“동길아! 느그 아버지다. 느그 아버지 참 멋쟁이다.”

하는 소리가 동길이의 ㉢ 코트를 때렸다. 용돌이란 놈의 목소리에 틀림없었다. 동길이는 온몸의 피가 얼굴로 치솟는 듯했다. 주먹으로 아무렇게나 눈물을 뿌리쳤다. 뿌였던 눈앞이 확 트이며 얼른 눈에 들어온 것은 소리를 지른 용돌이 아닌 창식이란 놈이었다. 요놈이 나무꼬챙이를 가지고 아버지의 수염을 골장 건드리면서,

“진짜 아이다야. 종이로 만든 기다, 종이로.”

하고 쉼쉼 웃어썩는 것이 아닌가. 동길이는 가슴속에 불이 확 붙는 것 같았다. 순간 동길이의 눈은 매섭게 빛났다. 이미 ㉣ 물불을 가릴 계제가 아니었다.

살행이처럼 내달을 따름이었다.

“으악!”

비명 소리와 함께 길바닥에 나가 떨어진 것은 물론 창식이였다. 개구리처럼 뻗었다. 그러나 동길이는 그 위에 덮쳐서 사정없이 마구 깔고 문댔다.

“아이크, 아야아야..... 켕!”

창식의 ㉤ 얼굴은 턱이 되는 판이었다. 아이들은 덩달아서 와아와아 소리를 지르며 떠들어 댔다. 동길이 아버지는 두 눈이 휘둥그레지며 손에서 메가폰을 떨어뜨렸다. 어찌 된 영문인지 알 수가 없었다. 창식은 이제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욕! 욕! 넘어가고 있었다.

“와 이카노? 와 이카노? 와 이캐?”

동길이 아버지는 후닥닥 광고판을 벗겨 던졌다. 그리고 하나 남은 손을 내저으며 어쩔 줄을 몰라 했다. 턱에 붙였던 수염이, 실밥이 떨어져서 흰 종이 수염이 가슴 앞에 매달려 너털너털 춤을 춘다.

“이누무 자식이 미쳤나, 와 이카노, 와 이캐 잉?”

- 하근찬, 「흰 종이 수염」 -

17.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투리를 사용하여 사실성을 높이고 있다.
- ②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며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 ③ 이야기의 진행에 따라 인물의 감정이 변화하고 있다.
- ④ 시대적 상황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소재가 드러나 있다.
- ⑤ 작품 밖의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와 행동을 서술하고 있다.

18. 다음은 ‘동길이가’ 쓴 일기이다. 위 글의 내용으로 보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오늘 학교 갔다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를 만났다. 영화를 선전하는 광대의 메가폰 소리가 요란해서 ① 무얼까 하는 호기심에 가까이 달려갔다. 그런데 글썽 아버지가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광고판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②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라 너무나 놀랐다. 아버지는 왜 하고많은 일 중에 하필 그런 일을 하는지……, 더군다나 ③ 나를 무시하는 아버지에게 화가 났다.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것은 창식이 아버지의 수염을 가지고 장난을 친 것이다. ④ 아버지를 놀리는 창식의 행동을 참을 수가 없었다. 있는 힘을 다해 창식을 때려눕혔다. ⑤ 아버지가 놀라 소리를 질렀다. 겨우 진정이 되기는 했지만 앞으로 우리 아버지를 놀리는 놈들은 가만두지 않을 테다.

19. <보기>는 ‘동길이 아버지’에 대해 토의한 내용이다. 적절한 것끼리 짝지은 것은?

< 보 기 >

- ㄱ. 한쪽 팔을 잃은 모습은 전쟁으로 인한 삶의 상처를 보여 주고 있어.
- ㄴ. 자신의 생존 기반을 무너뜨린 전쟁에 대해 강한 저항 의식을 보여 주고 있어.
- ㄷ. 오랜 기간의 징용 생활로 인해 변화된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것 같아.
- ㄹ. 흰 종이 수염을 달고 광고판 일을 하는 모습에서 가장으로서 생계를 꾸려 나가려는 눈물겨운 노력을 엿볼 수 있어.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 ㉠~㉣ 중, <보기>에서 설명한 표현이 쓰이지 않은 것은?

< 보 기 >

우리말에는, 본래의 의미와는 달리 관습적으로 오래 쓰여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게 된 말이 있다. 예를 들어 ‘물 끓듯 하다’는 ‘물이 끓는다’라는 본래의 의미와는 달리 ‘여러 사람이 몹시 술렁이는 모양’을 뜻한다. 이런 말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굳어진 표현이다. 이를 가리켜 ‘관용어’라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그런데 계면활성제는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하기도 한다. 화학적으로 합성하여 만든 계면활성제는 미생물에 의해 잘 분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배출된 계면활성제는 하천을 지나는 동안에도 그대로 남아 있으면서 거품을 일으킨다. 이러한 거품은 물의 자연적인 정화 작용이나 하수 처리 과정을 방해하여 하천의 오염을 가중시킨다. 또 계면활성제는 피부나 모발의 보호막까지 씻어내 버리기도 한다. 우리가 세제로 그릇을 닦은 후에 살갗이 갈라지고 지문이 없어지는 ‘주부 습진’을 앓게 되거나 비누로 머리를 감았을 때 머리카락이 서서히 손상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현재 시판되고 있는 대부분의 세제에는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하여 화학적으로 합성한 계면활성제가 사용되고 있다. 최근 화학적으로 합성한 계면활성제의 부작용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천연 원료를 사용한 세제가 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세정력이 떨어지고 보존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러한 세제에 표백제나 광택제, 부식방지제 등의 첨가물을 넣고 있다. 문제는 그 첨가물들이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세정력이 강하면서도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 무공해 세제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

【21-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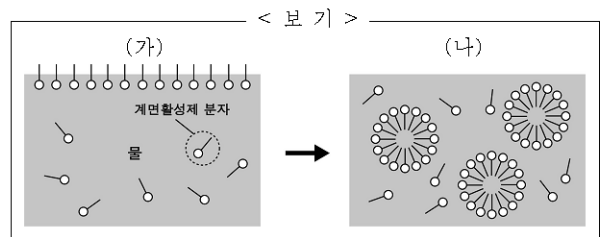
빨래나 설거지를 할 때 사용하는 세제는 일상생활의 필수품이다. 아무리 화학 분야에 문외한이더라도 아낌저녁으로 사용하는 세제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세제가 수많은 계면활성제의 일종이며, 계면활성제는 주로 석유를 원료로 화학적으로 합성하여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계면활성제란 글자 그대로 ‘계(界)’와 ‘제’ 사이에서 활동하는 물질이다. 개구리가 물과 땅이라는 두 계에서 활동할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듯이, 세제에 쓰이는 계면활성제는 물을 좋아하는 ‘친수성’과 기름을 좋아하는 ‘친유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계면활성제는 물속에 있으면 친유성 때문에 약간 불안정해서 주로 물의 표면에 위치하게 된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계면활성제의 농도가 증가하여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홀로 있어서 불안정하던 분자들이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서로 뭉쳐 구(球)의 형태를 형성하는데, 이를 ‘미셀’이라 한다. 이러한 미셀이 생기는 시점의 농도를 ‘임계미셀농도’라 하며, ‘임계미셀농도’ 이상이 되어야 계면활성제는 세탁 과정에서 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면 때는 어떤 과정을 통해 제거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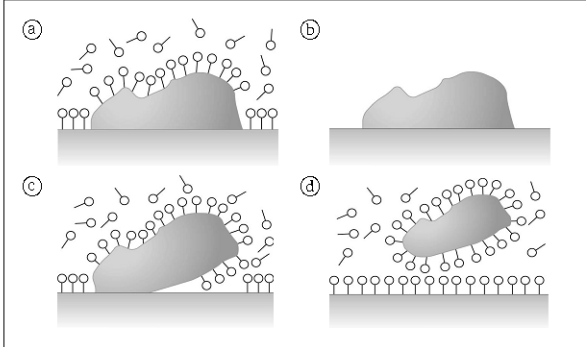
[A] 때가 묻어 있는 빨랫감을 임계미셀농도 이상으로 계면활성제가 풀린 물에 담그면, 계면활성제의 친유성 부분이 때에 달라붙으면서 때를 둘러싸기 시작하고, 그러면 때와 섬유 사이의 틈이 조금씩 커진다. 그 분리된 틈으로 계면활성제가 계속 달라붙어 때를 중심으로 미셀이 형성되면서 때는 섬유에서 떨어지게 된다.

21 위 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대한 해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미셀이 형성되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는 그림이군.
 ② (가)와 같은 상태는 친유성 때문에 생기는 모습이야.
 ③ (가)에서는 계면활성제 분자가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고 있군.
 ④ (나)는 계면활성제의 부피가 팽창하여 생긴 모습이야.
 ⑤ (가)와 (나)의 차이는 계면활성제의 농도가 다르기 때문이야.

22 [A]를 바탕으로 세탁 과정을 간략하게 제시한 것이다. 순서가 바르게 배열된 것은? [1점]



- ① (b) - (a) - (c) - (d) ② (b) - (a) - (d) - (c)
 ③ (b) - (c) - (a) - (d) ④ (b) - (c) - (d) - (a)
 ⑤ (b) - (d) - (a) - (c)

23 위 글로 보아 ㉠과 가장 관계 깊은 말은?

- ① 일거양득(一舉兩得) ② 순망치한(層亡齒寒)
 ③ 어부지리(漁夫之利) ④ 자승자박(自繩自縛)
 ⑤ 설상가상(雪上加霜)

[24-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전통적으로 회화는 외부 세계의 대상을 모방하고 재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그런데 19세기에 사진이라는 새로운 매체가 등장하면서 회화는 커다란 위기를 맞게 된다. 사진이 외부 세계의 대상을 모방하고 재현하는 역할을 회화보다 훨씬 쉽고 빠르게 수행하였기 때문이다. 화가들은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을까? 화가들은 사진이 표현할 수 없는 내용을 표현함으로써 이 위기를 극복하였다. 예컨대 인상파 화가들은 당시 흑백 사진이 표현할 수 없는 것들, 곧 빛의 밝기나 각도, 대기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는 사물의 색채와 시각적 인상 등을 표현하면서 회화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다. 결과적으로 사진의 등장이라는 위기 상황이 오히려 회화의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 주었던 것이다.

20세기 초반에 등장한 큐비즘도 영화라는 새로운 매체의 등장과 연관 지어 생각할 수 있다. 큐비즘은 이전의 회화 양식이 중시한 원근법적 시각 대신에 동시적 시각을 택했다. 큐비즘 화가들은, 고정된 하나의 시점에서 대상을 바라보면서 가까이 있는 것은 크게 그리고 멀리 있는 것은 작게 그리는 원근화법 대신에, ㉠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본 대상의 여러 측면을 한 화면에서 동시에 보여 주는 방법을 택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다양한 위치와 각도에서 촬영한 장면들을 편집하여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 내는 영화의 원리와 유사하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영화라는 새로운 매체의 등장이 큐비즘이라는 새로운 유파 형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텔레비전이라는 새로운 매체의 등장과 광범위한 보급 역시 회화에 영향을 미쳤다. 텔레비전이라는 매체가 등장하여 대중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텔레비전을 통해 쏟아져 나오는 통속적이고 상업적인 만화 이미지나 상품 광고 이미지에 대한 예술가들의 인식이 달라졌다. 그 결과 저급한 것으로 여겨 다루지 않았던 이러한 이미지들을 적극적으로 차용한 회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위대한 예술 작품들을 디즈니 만화의 이미지처럼 패러디한 리히텐슈타인의 작품이나, 당시의 대표적인 소비 상품이었던 통조림의 상표를 그대로 활용한 앤디 워홀의 작품과 같은 팝아트가 이에 해당한다.

물론 회화 양식에 변화가 일어난 것이 새롭게 등장한 매체 때문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미술 내적인 문제와 그 당시 지배적인 미학 이론 등이 회화 양식의 변화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팝아트에 대한 반발로 순수한 시각적 움직임의 가능성을 추구한 옵아트라는 분야가 탄생하게 되었다는 사실과, 기존의 전통을 거부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방법 대신에 우연의 효과를 택한 다다이즘이 철학자 니체의 사상에 영향을 받아 주장되었다는 사실 등은 이를 뒷받침해 준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회화 양식의 구체적인 변화 양상으로 미루어 볼 때, 매체가 회화의 내용이나 형식에 변화를 가져온 요인 중의 하나라는 사실 또한 부정할 수 없다.

24 위 글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제재 : 매체와 회화의 관계
- ◆ 세부 내용
 - 사진이 회화에 미친 영향 : 인상파의 등장 ①
 - 영화가 회화에 미친 영향 : 큐비즘의 등장
 - 텔레비전이 회화에 미친 영향 : 팝아트의 등장 ②
- ◆ 중심 내용 : 새로운 매체는 회화 양식의 변화를 가져온 요인 중의 하나이다. ③
- ◆ 설명 방식
 -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는 방식 ④
 -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여 신뢰성을 높이는 방식 ⑤

25 [A]를 통해 깨달은 교훈을 격언으로 표현해 보았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방식 뒤에 위기가 온다.
 ② 위기는 발전의 계기가 된다.
 ③ 위기는 또 다른 위기를 부른다.
 ④ 큰 위기에 큰 용기를 알게 된다.
 ⑤ 최대의 위기는 승리의 순간에 있다.

26 <보기>의 ㉠~㉥ 중, 위 글의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은?

< 보 기 >

- ㉠ 사진 : 카메라로 어떤 대상을 시각적으로 재현하는 행위는 아주 쉽다. 초점을 맞추고 셔터를 누르기만 하면 된다.
- ㉡ 인상파 : 인상파 화가들은 빛과 대기의 변화에 따라 사물의 색채와 시각적 인상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표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 ㉢ 영화 : 영화는 정밀하게 복제된 이미지로 사실감을 높인다. 그래서 영화 속의 원근감은 우리가 현실에서 느끼는 원근감과 거의 유사하다.
- ㉣ 팝아트 : 팝아트는 텔레비전 방송이나 상품 광고, 만화 속의 주인공 등 일상적이고 흔한 소재들을 미술 속으로 끌어들었다.
- ㉤ 다다이즘 :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를 거부한 다다이스트들은 물감을 문힌 실을 떨어뜨려 작품을 창작하는 등 우연의 효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27. ㉠의 구체적인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28-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라 묻는 말이,
 “그대는 뭐라 하오?”
 호랑이 기가 막혀,
 “네가 내 근분을 알려 하느냐? 나는 산신 가운데 영물이요, 백수 가운데 우두머리 산군(山君)이라. 이름을 호랑이라 하니 너는 무엇이나?”
 자라 영겁결에,
 “소어(小魚)는 자라로소이다.”
 호랑이 뜰더니,
 “웁다, 좋다. 내 평생에 원하기를 왕배탕(王背湯)이더니 오 늘날 만났구나. 통째로 삼키면 배 속에 들어가 저절로 왕배탕 이 되리로다. 어흥, 좋다. 자라라니 반갑도다.”
 칠 년 대한(大旱) 가뭄 만나 빗발 보고 반기는 듯, 구 년 홍 수 장맛날에 햇빛 보고 반기는 듯, 천리 타향에서 빗을 만나다 고 반기는 듯, 부모 여윈 어린이가 친척 보고 반기는 듯, 이십 에 시집 못 간 노처녀가 신랑 보고 반기는 듯, 삼십 전에 홀아 비 되어 과부 보고 좋아하듯, 한창 이리 좋아할 때, 자라가 왕 배탕이란 말은 못 듣고 반갑다는 말만 듣고 속마음에, ‘이런! 나를 보고 저리 좋아하니 나하고 촌수가 있나보다.’ 하고,
 “그대 나와 몇 촌이나 되오?”
 호랑이 이른 말이,
 “네가 자라라니 내 배 속과 촌수가 있느니라.”
 “그러면 먹는다는 말ियो?”
 “먹어도 통째 삼키겠다.”
 “웁다, 잘 죽는다. 자라 아니오.”
 “그러면 무엇이나?”
 “남생이요.”
 “남생이면 더욱 좋다. 백운 청산 구름 안개 속에 분별없이 다니더니 습각증(濕脚症)*이 급하여서 명의더러 물어보니 남 생이가 마땅하다 하기에 한번 보기를 원하였더니라.”
 “그러면 남생이도 아니오.”
 “그러면 무엇이나?”
 “두꺼비로다.”
 “그러면 더욱 좋다. 너를 삶아 술에 타 먹으면 담 걸리는 데 즉효로다.”
 자라가 기가 막혀 우는 말이,
 “못 보겠네, 못 보겠네, 병든 용왕 못 보겠네. 나의 충성 부 족던가, 나의 정성 부족던가? 객사 신세 자라 팔자 이 아니 불 쌍한가? 밝은 하늘 감동하여 백호를 죽여 주오. 애고애고 설운 지고.”
 이렇듯이 슬피 우니 호랑이 듣고,
 “이놈 무슨 내게 해로운 소리만 하느냐?”
 자라 생각하되, ‘왕명을 받들고 만 리 밖에 나와 이 지경을 당하니, 한번 죽어지면 죽을 것도 없는 것이라. 먹지 못할 것 이 없이 몽땅 잡아먹는다 하니, ㉠ 내 한번 고깃값이나 하리 라.’ 하고 모진 마음을 굳게 먹고,
 “어따, 네가 내 근분을 알려느냐?”
 하며 호랑이의 앞턱을 냅다 물고 매달리니, 호랑이,
 “애고 놓아라, 아니 먹으마.”
 자라 놓고 나앉으며 움츠렸던 목을 길게 빼어 염려 없이 기 세를 보이니, 호랑이 보더니,

“이크 장사 갑주(甲冑)** 속에 방망이총 나온다.”
하며 저만치 물러앉으니 자라가 호랑이 질러하는 김새를 알고,
“그대가 내 근분을 자세히 아는가? 나는 수국 충신 간의대
부 겸 시랑 별주부 별 나리라 하네.”

호랑이 무식하여 자라 별(鬚) 자 못 알아듣고 무수히 새겨,
“별 나리, 별 나리, 그저 나리도 무섭다 하되 별(別) 나리라
니 더 무섭다. 생긴 모양보다는 벼슬은 높고 찬란한데, 이곳에
는 어찌 나왔는가?”

자라 대답하되,

“이곳 나오게 된 근분을 알려나?”

“어디 좀 알아 보세.”

“우리 수궁이 퇴락하여 새로 다시 지은 후에, 천여 칸 기와
를 내 손으로 이어갈 때, 추녀 끝에 몰아가다 한 발길 미끄러
져 공중에서 뚝 떨어져 빙빙 돌아 내려오다 목으로 걸려 내리
박혔기로, 명의더러 물어보니 호랑이 쓸개가 약이 된다 하기에
벽력장군 앞세우고 도로랑 귀신과 호랑이 사냥 나왔으니, 그대
가 호랑이라 불리면 쓸개 한 보 못 주겠나? 도로랑 귀신 거기
있느냐? 어서 급히 빨리 나와 용천점 드는 칼로 이 호랑이의
배 갈라라. 도로랑!”

하고 달려드니

[A] 호랑이 깜짝 놀라 물똥을 와락 싸고, 해하의 장막에서
초나라 노랫소리에 놀란 초패왕 포위 뚫고 남으로 달아나
듯, 적벽강 불 싸움에 패군장 위왕 조조 정육 따라 도망하
듯, 북풍에 구름 단듯, 불화살이 달아나듯, 왜물 조충에 철
환이 단듯, 녹수(綠水)를 열른 건너 동쪽 숲을 헤치면서
쭈루쭈루 달아나 만첩청산 바위틈에 혼자 앉아 장담하고
하는 말이,
“내 재주 아니었던들 도로랑 귀신 피할쏜가? 하마터면
죽을 뻔하였구나.”

— 「토끼전」 —

* 습각증(濕脚症) : 다리에 습진이 생기는 병.

** 갑주(甲冑) : 갑옷과 투구.

28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장면을 회귀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② 두 인물 사이의 관계가 역전되고 있다.
- ③ 인물의 대화 위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 ④ 산문에 운문적 요소가 섞인 문장을 구사하고 있다.
- ⑤ 공간적 배경을 통해 인물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29 ㉠에 담긴 ‘자라’의 심리를 가장 잘 표현한 것은?

- ① 죽음은 피할 수 없으니 마음이나 편히 먹자.
- ② 죽을 때 죽더라도 한번 덤벼들기나 해 보자.
- ③ 이왕 죽게 되었으니 보상이나 두둑이 받아 보자.
- ④ 어차피 죽을 것이니 저 늑의 소원이나 풀어 주자.
- ⑤ 죽을 때까지 내 가치를 알리지 못하다니 애석하다.

30 <보기>는 위 작품의 다른 부분을 요약한 것이다. <보기>를
위 글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용궁에서 용케 살아난 토끼가 자라와 헤어져 태양산 깊은
계곡으로 의기양양하게 가다가 여러 날 굶주린 독수리를 만
난다. 토끼는 자기를 잡아먹으려는 독수리에게 엄동설한(嚴
冬雪寒)에도 도토리, 닭 창자, 병아리, 강아지 등을 언제든지
나오게 하는 ‘피 책(冊)’이 굴속에 있다고 독수리를 속인다.
결국 굴속으로 들어간 토끼는 ‘피 책’을 내어 보내라는 독수
리에게 ‘피 책’은 다름이 아니라 자기 목숨 살리는 굴속이
‘피 책’이라며 맹랑하게 말한다.

- ① 자라는 위협으로 위기를 극복하지만 토끼는 감언이설(甘言利
說)로 위기를 극복한다.
- ② 호랑이가 들은 ‘도로랑 귀신’과 독수리가 기대한 ‘피 책’은 실
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 ③ 자라를 만났을 때의 호랑이의 반가운 마음은 굶주린 독수리
가 토끼를 만났을 때와 비슷할 것이다.
- ④ 자라가 호랑이에게 자신과 몇 촌이나 되는지를 묻는 부분은
토끼가 피 책이 있다고 말하는 부분에 대응된다.
- ⑤ <보기>와 위 글 모두 ‘뜻하지 않은 만남 → 위기에 직면함 →
위기를 극복함’의 구성을 취한다.

31 밑줄 친 대상 중 [A]에서의 ‘호랑이’와 행동 양상이 가장 유
사한 것은?

- ① 까마귀 싸우는 골에 백로야 가지 마라
성난 까마귀 흰 빛을 샘낼세라
청강(淸江)에 깨끗이 씻은 몸을 더럽힐까 하노라
- ② 굴뚝이 매암이 되어 날개 돌려 날아 올라
높으나 높은 나무 소리는 좋거니와
그 위에 거미줄 있으니 그를 조심하여라
- ③ 물노라 부나비야 네 뜻을 나 몰라라
한 나비 죽은 후에 또 한 나비 따라오니
아무리 하찮은 생물인들 너 죽을 줄 모르느냐
- ④ 두꺼비 파리를 물고 두엄 위에 치달아 앉아
건넌 산 바라보니 백송골이 떠 있거늘 가슴이 끔찍하여 뿔뿔
뛰어 내닫다가 두엄 아래 자빠졌구나
모처럼 날랜 나이가기망정이지 상처받 뻔하였구나
- ⑤ 발가벗은 아이들이 거미줄 테를 들고 개천으로 왕래하며
발가숭아 발가숭아 저리 가면 죽나니라 이리 오면 사나니라
부로나니 발가숭이로다
아마도 세상일이 다 이러한가 하노라

【32-3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심리학자 프로이트는 신경증 환자들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의식하고 있는 것은 심리 과정의 극히 일 부분에 불과할 뿐이고, 의식의 뒤에 감추어진 거대한 무의식의 세계가 우리의 생각 및 행동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프로이트는 우리의 수많은 행동, 느낌, 생각 중 우연인 것처럼 보이는 것들도 사실은 무의식이 작용하여 일어나는 것으로 보았다. 예를 들어, 깜빡 잊고 물건을 ㉠ 놓고 온다든지, 말실수를 하는 것까지도 우연이 아니라 그런 행동과 관련된 무언가가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심적 구조를 이루는 세 가지 요소로 ‘이드(id)’, ‘자아(ego)’, ‘초자아(superego)’를 들었으며, 이 요소들 간의 역동적 관계를 설명하였다.

프로이트가 발견한 무의식은 본능적 욕구와 관련되는데, 전적으로 무의식의 지배를 받는 ‘이드’는 이 본능적 욕구의 중심축을 이룬다. 내적·외적인 요인에 의해 본능적 욕구가 자극을 받으면, ‘이드’는 이를 즉각적으로 충족시키려 한다. 현실적인 제한이나 미래의 결과에 상관없이 즉각적인 쾌락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이드’는 ‘쾌락의 원칙’을 따른다고 할 수 있다. 욕구의 즉각적인 충족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 ‘이드’는 욕구의 대상을 머릿속으로 상상함으로써, 그 심상을 통하여 내적 긴장을 풀려고 한다. 프로이트는 꿈이나 환각, 백일몽 등을 그 예로 들고, 꿈의 경우 드러난 내용(꿈의 표면)은 잠재적 사고(무의식)의 변형된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자아’는 ‘이드’로부터 갈라져 나온 것으로, 현실과의 접촉을 통하여 현실적인 방법으로 본능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기능을 한다. ‘자아’는 현실에서 용납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욕구의 충족을 추구하거나 현실 상황을 고려하여 욕구의 충족을 지연시키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욕구를 억제하기도 한다. 따라서 ‘자아’는 ‘현실의 원칙’을 따른다고 볼 수 있다.

프로이트에 의하면 ‘이드’와 ‘자아’는 주로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관여한다. 하지만 ‘자아’로부터 갈라져 나온 ‘초자아’는 부모나 사회의 도덕규범이나 가치가 성장 과정을 통하여 내면화되어 이루어지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행동의 도덕성을 관할하는 양심의 구실을 한다.

한편, ‘이드’와 ‘초자아’는 끊임없는 갈등상태에 있다. ‘자아’는 ‘이드’와 ‘초자아’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한편, 현실을 고려하여 우리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 프로이트는 ‘이드’, ‘자아’, ‘초자아’ 사이의 조화가 유지되지 못하면 여러 가지 부적응 증상을 경험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예를 들어 우리가 느끼는 불안감은, ‘이드’의 욕구가 강렬하여 ‘자아’가 이를 통제할 수 없을 때 느끼는 위협과 연관된다. 따라서 ‘자아’는 ‘이드’에 충동질당하고 ‘초자아’에 구속받고 현실에 부딪히면서 어떻게든 이 힘들의 균형을 맞추려고 한다.

프로이트의 관점은 이러한 상황에 있는 ‘자아’를 도와주는 것이었다. 프로이트는 ‘이드’와 ‘초자아’ 사이의 과도한 긴장을 완화하고 ‘이드’를 의식의 세계로 끌어내어 ‘자아’를 변화시켜 갈 수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그는 심적 구조의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삼아 ‘자아’를 확대하고 강화하는 것을 치료의 목표로 여겼다.

32 위 글의 중심 내용을 이끌어 내기에 적절한 질문은?

- ① 프로이트는 어떻게 무의식을 발견했는가?
- ② 프로이트의 이론이 지닌 한계는 무엇인가?
- ③ 프로이트는 심적 구조를 어떻게 설명했는가?
- ④ 프로이트의 이론은 후대에 어떻게 계승되었는가?
- ⑤ 프로이트는 심리학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33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자아’는 ‘이드’에서 분화된 것이다.
- ② ‘이드’는 본능적 욕구의 중심축을 이룬다.
- ③ ‘이드’는 무의식과 의식의 작용을 동시에 받는다.
- ④ ‘자아’는 ‘이드’와 ‘초자아’ 간의 갈등을 조정한다.
- ⑤ 무심코 저질렀던 실수도 무의식이 작용한 것일 수 있다.

34 위 글과 <보기>를 통해 이끌어 낼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 보 기 > —

현실 원칙에 의해 억제되었던 욕구는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다가, 이야기할 때 슬그머니 작용하여 객관적 사실을 자기의 욕구에 맞게 변형시킨다. 따라서 이야기 속의 세계는 작가의 억압된 욕구가 변형되어 나타난 것이다.

- ① ‘이야기’는 객관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 준다.
- ② ‘이야기’는 변형된 욕구가 담겨 있다는 점에서 ‘꿈’과 유사하다.
- ③ 무의식의 자유로운 표출이라는 점에서 ‘말실수’와 ‘이야기’는 유사하다.
- ④ ‘이야기’는 욕구의 즉각적인 충족을 어렵게 하여 내적 긴장을 고조시킨다.
- ⑤ ‘초자아’가 ‘이드’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점에서 ‘이야기’와 ‘꿈’은 비슷하다.

35 문맥적 의미가 ㉠과 가장 유사한 것은? [1점]

- ① 그는 책상 위에 책을 놓고 집에 갔다.
- ② 나는 건강이 좋지 않아 일을 놓고 있다.
- ③ 그는 세를 놓고 다달이 돈을 받는 사람이었다.
- ④ 주사를 놓으려고 하자 아이는 마구 울기 시작했다.
- ⑤ 동문회에서 학교 이전 문제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다.

【40-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퍼스널 컴퓨터를 초기 설정 그대로 사용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잘 모르기 때문에 손을 대지 않는 경우도 있고, 제조 업체에서 설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한다. 이처럼 다른 선택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초기 설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경향을 ‘초깃값 효과’라고 한다.

(나) EU에서는 장기 기증에 동의한 사람이 적은 나라(덴마크 4%, 독일 12%, 영국 17%, 네덜란드 28%)와 많은 나라(스웨덴 86%, 오스트리아·벨기에·프랑스·헝가리·폴란드 98% 이상)가 확실히 구분된다. 왜 그럴까? 덴마크, 독일 등 동의자가 적은 나라에서는 장기를 기증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 한 기증 의사가 없다고 간주한다. 이에 반해 오스트리아처럼 동의자가 많은 나라에서는 장기 기증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 한 기증 의사가 있다고 간주한다. 이는 초기 설정의 차이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짐을 보여 주는 것이다.

(다) 존슨과 골드슈타인은 이 사실을 실험을 통해 확인했다. 그들은 (1) 초기 설정이 ‘장기 기증에 합의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지만 거부할 수도 있는 경우, (2) 초기 설정이 ‘장기 기증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지만 장기 기증도 선택할 수 있는 경우, (3) 초깃값을 설정하지 않고 어느 한쪽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로 나누어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초깃값이 ‘장기 기증에 합의한다’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82%가 초깃값인 합의를 선택했다. 반면에 초깃값이 ‘장기 기증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일 경우에 장기 기증을 하겠다는 쪽을 선택한 사람은 42%밖에 안 되었다. 어느 쪽이나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79%가 장기 기증에 합의하겠다는 내용을 선택했다. ㉠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경우를 실제 장기 제공 의사가 있는 사람의 비율로 간주하면, 초기 설정이 장기 기증의 의사 표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다.

(라) 그렇다면 초기 설정은 왜 사람들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존슨과 골드슈타인은 그 원인을 세 가지로 지적한다. 우선, 공공 정책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초깃값을 정책 결정자(대부분은 정부)의 ‘권유’로 생각하여 좋을 것이라 여기고 받아들인다. 둘째, 초깃값과 다른 의사 결정을 할 때는 신청 서류를 쓴다거나 발송하는 등 시간이나 노동력 측면에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초깃값을 받아들인다. 셋째, 초깃값을 선택하지 않는 것은 이미 주어진 것을 포기하는 일이므로 이를 손실로 여겨 그 손실을 피하기 위해 초깃값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마) 이처럼 무엇을 초깃값으로 설정하느냐 하는 것은 사람들의 의사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국가 수준의 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윤리·기술·문화·경제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초깃값 설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40. (가) ~ (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 일상적 사례를 통해 글의 주제와 관련된 개념을 소개하고 있다.
- ② (나) : 현상의 진행 과정을 단계적으로 밝히고 있다.
- ③ (다) : 전문가의 연구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 ④ (라) : 현상의 원인에 대한 전문가의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 ⑤ (마) : 중심 내용에 근거하여 글쓴이의 견해를 덧붙이고 있다.

41. 위 글을 읽고 <보기>를 분석해 보았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뉴저지 주	펜실베이니아 주
○ 자동차 소유자는 A에 자동적으로 가입하도록 함 ○ B를 선택할 경우 별도의 절차를 거치게 함 ○ 그 결과 80%가 A를 선택함	○ 자동차 소유자는 B에 자동적으로 가입하도록 함 ○ A도 선택할 수 있게 함 ○ 그 결과 75%가 B를 선택함

* A : 보험료가 싸지만 보장 범위가 좁은 보험.
 B : 보험료가 비싸지만 보장 범위가 넓은 보험.
 (단, 두 주 모두 A와 B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하도록 했음.)

- ① 특정 보험에 자동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것은 초기 설정에 해당한다.
- ② 만약 펜실베이니아 주에서 자동 가입 조항을 없앤다면 B를 선택하는 비율이 더 높아질 것이다.
- ③ 뉴저지 주에서 펜실베이니아 주의 초기 설정을 도입한다면 A를 선택하는 비율이 낮아질 것이다.
- ④ 두 주 모두 자동 가입을 선택한 사람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초깃값 효과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 ⑤ 뉴저지 주에서는 별도의 절차를 거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자동 가입을 선택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42. ㉠을 통해 추리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임의로 선택할 수 있을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장기 기증에 동의한다.
- ② 초깃값이 구체적으로 주어지지 않는 경우 장기 기증에 대한 의사 표명이 불확실하다.
- ③ 실제 장기 제공 의사가 있는 사람은 초기 설정이 어떠한가에 관계없이 소신을 지킨다.
- ④ 초깃값을 선택한 사람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사람들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했다고 볼 수는 없다.
- ⑤ 장기 기증에 동의하는 사람을 최대한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초기 설정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43-4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내 벗이 몇이나 하니 수석(水石)과 송죽(松竹)이라
동산(東山)에 달 오르니 그 더욱 반갑구나
㉠ 두어라 이 다섯밖에 또 더하여 무엇하리 <제1수>

꽃은 무슨 일로 피면서 쉬이 지고
풀은 어이하여 푸르는 듯 누르나니
아마도 변치 않을손 바위뿐인가 하노라 <제3수>

┌ 더우면 꽃 피고 추우면 잎 지거늘

[A] 술아 너는 어찌 눈서리를 모르느냐

┌ 구천(九泉)*에 뿌리 끝은 줄을 글로 하여 아노라 <제4수>
- 윤선도, 「오우가(五友歌)」 -

* 구천(九泉) : 땅속 깊은 밑바닥.

(나)

세상에서 모두들 모란꽃 붉은 것만 좋아하여
온 딸 가득히 심고 가꾸네.
㉡ 누가 거친 이 초야(草野)에
좋은 꽃 있는 줄 알기나 하겠나?

┌ 어여쁜 모습은 연못 속의 달을 꿰뚫고
[B] 향기는 언덕 나무의 바람에 전하네.
┌ 외진 땅에 있노라니 찾아주는 귀공자(貴公子) 적어
┌ 아리다운 자태를 농부에게 불이네.

世愛牧丹紅 栽培滿院中(세애목단홍 재배만원중)
誰知荒草野 亦有好花叢(수지황초야 역유호화충)
色透村塘月 香傳壠樹風(색투촌당월 향전릉수풍)
地偏公子少 嬌態屬田翁(지편공자소 교태속전옹)
- 정습명, 「석죽화(石竹花)*」 -

* 석죽화(石竹花) : 매랭이꽃.

(다)

갑자기 8·15 광복이 되자 나는 서울로 또 가 있었다. 한겨울을 지나고 와 보니 난은 모두 죽었고, 겨우 뿌리만 성한 것이 두어 개 있었다. 그걸 서울로 가지고 가 또 살려 잎이 돋아나게 하였다. 건란(建蘭)과 춘란(春蘭)이다. 춘란은 중국 춘란이 진기한 것이다. 꽃이나 보려 하던 것이, 또 6·25 전쟁으로 피난하였다가 그 다음 해 여름에 가 보니, 장독대 옆 풀섶 속에 그 고해(枯骸)만 영성하게 남아 있었다.

그 후 전주로 와 양사재(養士齋)에 있으면, 소공(素空)이 건란 한 분(盆)을 주었고, 고경선(高敬善) 군이 제주서 풍란 한 등걸을 가지고 왔다. 풍란에 웅란(雄蘭)·자란(雌蘭) 두 가지가 있는데, 자란은 이왕 안서(岸曙) 집에서 보던 그것으로서 잎이 넓죽하고, 웅란은 잎이 좁고 뾰여났다. ㉢ 물을 자주 주고, 겨울에는 특히 옹호(擁護)하여, 자란은 네 잎이 돋고 웅란은 다 북다북하게 길었다. 벌써 네 해가 되었다.

십여 일 전 나는 바닷가를 먹고 중독되어 콧물*이 났다. 5, 6일 동안 미음만 마시고 인삼 몇 뿌리 달여 먹고 나왔으니, 그래도 병석에 누워 더 조리하였다. 책도 보고, 시도 생각해 보았다. ㉣ 풍란은 곁에 두었다. 하이얀 꽃이 몇 송이 벌었다. 방혈(芳烈), 청상(淸爽)한 향이 움직이고 있다. 나는 밤에도 자다가 깨었다. 그 향을 맡으며 이렇게 생각을 하여 등불을 켜고 노트에 적었다.

┌ 잎이 뽀뽀하고도 오히려 영롱(玲瓏)하다.
색은 향나무 껍질에 옥(玉) 같은 뿌리를 서려 두고,
청량(淸凉)한 물기를 머금고 바람으로 사노니.

[C]

┌ 꽃은 하이하고도 여린 자연(紫烟) 빛이다.
높고 조촐한 그 품(品)이며 그 향(香)을,
┌ 숲 속에 숨겨 있어도 아는 이는 아노니.

㉤ 완당(阮堂) 선생이 한묵연(翰墨緣)**이 있다듯이 나는 난연(蘭緣)이 있고 난복(蘭福)이 있다. 당귀자·계수 나무도 있으나, 이 웅란에는 백중(伯仲)할 수 없다. 이 웅란은 난 가운데에서도 가장 진귀(珍貴)하다.

‘간죽향수문주인(看竹香須問主人)***’이라 하는 시구가 있다. 그도 그럴 듯하다. 나는 어느 집에 가 그 난을 보면, 그 주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겠다. 고서(古書)도 없고, 난(蘭)도 없이 되잖은 서화(書畵)나 붙여 논 방은, 비록 화려 광활하다 하더라도 그건 한 요릿집에 불과하다. 두실와옥(斗室蝸屋)****이라도 고서 몇 권, 난 두어 분, 그리고 그 사이 술이나 한 병을 두었다면 삼공(三公)을 바꾸지 않을 것 아닌가! 땀은 육체나기를 따름이지만 난은 정신을 기르지 않는가!

- 이병기, 「풍란(風蘭)」 -

* 콧물(霍亂) : 음식이 체하여 토하고 설사하는 급성 위장병.

** 한묵연(翰墨緣) : 문한(文翰; 문필에 관한 일), 필묵(筆墨; 붓과 먹)과의 인연.

*** 간죽향수문주인(看竹香須問主人) : 대나무가 자라는 것을 보고 모름지기 그 주인을 묻는다는 말로, 주인의 지조를 알 수 있다는 의미이다.

**** 두실와옥(斗室蝸屋) : 매우 작은 집.

43 (가) ~ (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점층적 반복을 통해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② (가)와 (다)에는 대상을 예찬하는 태도가 드러나 있다.
- ③ (나)와 (다)에는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드러나 있다.
- ④ (가) ~ (다)는 모두 이상향에 대한 동경을 노래하고 있다.
- ⑤ (가) ~ (다)는 모두 화자가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있다.

44 [A]에 나타난 사고 과정을 <보기>와 같이 정리해 보았다. 이와 유사한 사고 과정이 드러난 것은?

< 보 기 >
대상의 현상적 모습 ➡ 대상의 본질적 속성

- ① 감각은 불완전하므로 감각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 ② 추상적 관념에 얽매이지 말고 구체적 사실을 믿어야 한다.
- ③ 세속의 부귀영화에는 위기가 따르므로 지나친 욕심은 버려야 한다.
- ④ 사람의 언행을 관찰해 보면 그 사람의 됬됨이가 어떠한가를 알 수 있다.
- ⑤ 세태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어야 자신의 신념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다.

45 [B]와 [C]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화자의 내적 갈등이 나타나 있다.
- ② 역동적 이미지가 나타나 있다.
- ③ 대상의 변화 과정이 드러나 있다.
- ④ 한가로움의 정서가 형상화되어 있다.
- ⑤ 대상에 대한 화자의 애정이 담겨 있다.

46 (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풍란'을 얻게 된 경위가 나타나 있다.
- ② '난'을 기른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 ③ '뺑'과의 대비를 통해 '난'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 ④ 한시의 구절을 인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계절적인 배경을 활용하여 '풍란'의 본성을 강조하고 있다.

47 ㉠ ~ ㉣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다섯' 친구가 있다는 데서 오는 자족감이 드러나 있군.
- ② ㉡ : '좋은 꽃'의 존재를 몰라주는 세상에 대한 안타까움이 느껴져.
- ③ ㉢ : 글쓴이의 정성과 그에 따른 보람이 느껴지는군.
- ④ ㉣ : '풍란'의 실제적인 효용을 시험해 보려는 행동이야.
- ⑤ ㉤ : 글쓴이의 취미와 자존심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어.

